



대만 재보험 시장의 현황

한성원 연구원

대만은 지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재보험시장이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발달해왔음
 현재 Central Re, RGA(RGA Global Reinsurance), GenRe(General Reinsurance AG's) 등 3개 재보험회사가 사업 중임. 최근 대만의 재보험회사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보험회사와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 중에 있음. 또한, IFRS 17 도입에 대비하여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 보험 상품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 대만은 지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재보험시장이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발달해왔음¹⁾

- 대만의 손해보험 업계는 2016년 기준 1조 89억 달러의 보험료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대비 보험료가 7.4% 성장함
 - 이 중 재물보험은 17%를 차지하며 보험료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함
- 대만은 여름철 태풍과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 또한 빈번하게 발생됨
 - 2016년에는 메이퐁 지진을 포함한 잦은 태풍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785억 대만 달러가 지급되었으며, 이는 13년 만의 가장 큰 손해로 기록됨²⁾

■ 현재 Central Re, RGA(RGA Global Reinsurance), GenRe(General Reinsurance AG's) 등 3개 재보험회사가 사업 중임³⁾

- Central Re는 대만의 유일한 자국 재보험회사로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성장하고 있음

1) Timetric, "Reinsurance in Taiwan, Key Trends and Opportunities to 2020"

2) RGA(2018. 8), "Reinsurance - no seven year itch"

3) RGA와 GenRe는 대만 재보험시장에서 지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생명보험과 생명·건강보험을 각각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음. Swiss Re는 대만 국제 재보험회사로 2004년 가장 처음 진출 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국외 인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철수함

- 2017년 기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시장점유율은 각각 19%와 20%로 전년 대비 9% 증가함
- 2015년 대만 전체 손해보험의 약 31.9%를 인수하였고 건강보험과 생명보험은 각각 1.5%, 0.7% 인수함⁴⁾
- 2016년 자연재해로 인한 큰 손해는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자본 시장을 통한 위험 이전으로 대재해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였음
- 향후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해외 사업을 모색 중임⁵⁾

■ 최근 대만의 재보험회사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보험회사와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 중에 있음

- 2018년 기준 대만은 65세 인구가 14.05%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8년 안으로 고령 인구가 총 인구수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⁶⁾
- 최근 RGA는 대만 보험회사와 Multi-Pay CI(Critical Illness)⁷⁾보험을 개발하였으며, 대만 국민들의 의식주 생활습관을 반영한 계약심사와 상품 개발을 통해 다른 보험회사와의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음

■ 또한, IFRS 17 도입에 대비하여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 보험 상품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⁸⁾

- 규제당국은 보장성 보험 상품 승인 과정을 간소화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 [kiri](#)

4) Timetric(2016), "Reinsurance in Taiwan, Key Trends and Opportunities to 2020"

5) 대만의 경우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로 출재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없음

6) 대만 국가 발전 협회(Taiwan's National Development Council)

7) 추가로 발생하는 중대질병(CI: Critical Illness)을 보장하기 위한 Multi-Pay 형식의 보험

8) RGA(2018. 8), "Reinsurance - no seven year itch"